

<2008년 4월 6일 주일말씀>

진리의 부활

(본 문)

- 요한복음 8장 32절
- 요한복음 14장 6절
- 요한복음 5장 19-32절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믿으면 무덤에서 나와 부활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두고 아들이라 말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 4000년 동안 구약인들은 아담의 후손들로 연대죄로 인하여 죽은 입장입니다. 고로 종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의 입장으로 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였으니, 이는 육의 부활이 아니라 정신적 신앙적 부활인 것을 확실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행하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는 자유를 얻고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온 자로서 그가 곧 진리입니다. 그 진리대로 살아야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무엇으로 죄의 사망권 세계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가지고 와서 진리를 전하여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게 하므로 구원하십니다.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무자비한 고통을 받을 자들을 다른 것으로는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가 가지고 온 말씀으로 구원한다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해주고 부활을 시켜줍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듣고 따르면 새 시대로 부활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영혼이 구원을 받아 생명권으로 나오게 됩니다. 진리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 없이는 메시아라도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생명을 구원시킵니다. 영혼 뿐 아니라 육신도 사망에 묶인 몸을 생명권으로 옮겨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영도 부활되어 천국으로 가게 해주고, 육도 부활시켜 지상천국을 이루게 해줍니다. 죽은 몸이 살아나는 부활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찾지 못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서는 심령의 부활, 정신의 부활, 영의 부활, 육신 삶의 부활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자유 없이 살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아 전하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그 진리로 애굽을 벗어나 자유된 몸으로 부활되어 결국 자기 선조들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여 믿고 따르는 자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사망에서, 종의 입장에서 사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어 아들 입장이 되도록 부활시켜 구원하였습니다. 그 시대 메시아든, 선지자든 구원자는 그 시대에 해당하는 진리를 가지고 와서 그 진리로 구원을 시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고 따르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되어 자유로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진리 아니면 지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이 진리요,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시대도 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4675.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야 사망

으로 가지 않습니다. 시대 말씀을 귀히 보고 행치 않으면 사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괴로운지 한 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못갈 망정, 절대 지옥은 가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이같이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지옥에 안 가고, 천국도 못 가는 진리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한 곳은 꼭 가야 할 길 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천국, 못 듣고 못 행하면 지옥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참으로 귀히 여기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모든 시간을 투자하여 천국같이 놀고, 사랑에 빠져 향락을 누리며 먹고 입고 영화롭게 지내는 것을 부러워 말아요. 그들의 천국은 잠깐 살다마는 지상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놀고먹고 누리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주를 따라 오직 진리를 행하면 고생스럽게 산다 해도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고 땅에서도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부러워할 일입니다. 영원히 후회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은“너희가 나를 위해 집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잃었느냐. 세상에서도 받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받는다. 그러니 후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사는 자들도 가서 그 속을 보면 걱정, 근심, 염려 속에 마음 편치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러워말고 유혹받지 말고, 지금까지 청춘과 인생을 투자한 이 진리에 더 충성하며 더 좋은 이 시대 구원을 이루는 이 해(年)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쳐주었으니, 더 좋은 구원과 부활을 이루기 위해 더 고통 받는 것과 핍박 받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참고 성구>

(마 5:1-15)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11]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진리는 아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구원자만이 가지고 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오직 자기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없다고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진리를 주지 않았 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주지 않으면 이 시대 진리를 누가 감히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면 답도 못 쓰고, 모르면 못 살게 되고, 모르면 할 수도 없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목숨 걸고 배우고, 깊이 알고, 정 말로 실천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이 부활을 시킵니다. 전도한 자에게 말씀을 전해주어 따라 올 때, 말씀을 전한 자가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시켜 준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는 공지를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시대 말씀, 진리로 부활되었으니 믿음에 굳게 서 어떤 환난 중에서도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니 환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겨울에도 세월은 가고 비바람과 태풍, 천둥 속에서도 역시 세월은 쉬지 않고 가듯이 환난, 풍랑, 고통 속에서도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행복은 오는 것입니다. 극적인 환난 때에 극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니 환난 때, 어려울 때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30개론과 시대의 진리 때문에 모두 하나님을 믿고 부활되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온 생명들이 되었으니 말씀을 다시 배우고, 또 보고 또 보고, 진리를 전하여 사망권에 있는 생명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부활절을 맞아 절기만 맞이하지 말고, 자신도 더 좋은 부활을 이루고 꼭 정신적인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썩은 정신을 가진 자는 부활되지 못한 자입니다. 행실도 부활되어야 합니다. 더 뛰고, 열심을 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영도 이에 해당하는 부활을 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

다.

<시>

눈보라 몰아치는 겨울에도

세월은 간다.

비바람 태풍이 몰아쳐도

세월은 간다.

환난 뽀박 모진 고통 몰아쳐도

행복은 온다.

(시 대한 해석)

「환난 가운데 행복은 오고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니 이 때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다 흘러갑니다. 선생님도 이 때 다 얻습니다. 선생님도 대둔산에서 고통 속에 있었을지라도 이 때 말씀 받았습니다.」